

시민 여러분들께 ~시장 메시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와구치시는 1933년 4월 1일에 탄생한 후로부터 올해 시제시행 9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주물을 비롯한 제조산업과 식목·화훼의 녹화산업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을 하였으며, 또한, 도교에 인접한 입지환경과 교통의 편리성도 있어, 현재 넓게 '살기 좋은 마을'로 높은 평가를 받아, 인구는 60만을 넘어 정령지정도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두번째 규모로 크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빛나는 가와구치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9년간 시장으로서 '가와구치의 활기'를 만들어 내는 다양한 시책에 임해 왔습니다.

이 수년간 코로나 19 대책으로는 중핵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시보건소를 기축으로한 의료제공체제의 강화와 빈틈없는 중층적인 백신접종을 진행하는 등, 시민 눈 높이에 맞춘 유연한 감염대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3대 프로젝트 완성을 향해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육아보육환경의 충실, '시산품 페어' 개최 등 시내 경제의 활성화, 초중학교 전 교실·전중학교 체육관에 에어컨 설치 등 교육환경의 충실, 빗물 저류시설 등의 정비와 구획 정리의 추진 등 도시 기반 정비의 충실, 히가시소방소의 정비 등에 힘을 다해, 크게 시정을 전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여러분의 시정운영에의 이해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시제시행 90주년이라는 기념할 만한 해를 한층 더 가와구치시 발전의 계기로 여겨, 그린센터의 재정비를 비롯한 자연보호의 추진과

중핵시에 상응하는 문화·예술의 고양을 위해 리리아의 대규모 리모델링과 미술관의 일체적 정비 등, 10 년후 시제시행 100 주년, 나아가 그 앞의 미래가와구치를 내다보며 다양한 '마을 만들기 시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